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인터넷 안전망! 그린 i-Net

www.greeninet.or.kr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그린i-Net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진강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구축 ‘그린i-Net’ 보급 사업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청소년 95.8%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장소로 집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보다 쉽게 유해정보에 노출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청소년들을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그린i-Net’을 만들었습니다.

‘그린i-Net’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보급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는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으며, 유해정보 차단 기능 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 시간 조절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불과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인터넷안전망 ‘그린i-Net’ 홈페이지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횟수가 무려 90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결과로 생각되며, 동시에 ‘그린i-Net’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증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그린i-Net’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린i-Net’이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여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건강한 인터넷 강국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은 그린i 캠페인을 통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린i-Net’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진강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세상 그린i-Net이 만들어갑니다”

CONTENTS

1. 그린i-Net 구축 배경	
1-1 인터넷 유해정보의 심각성 -----	06
1-2 유해정보 자율차단 장치의 필요성 -----	10
2. 그린i-Net이란?	
2-1 그린i-Net이 탄생하기까지 -----	14
2-2 그린i-Net 개요 -----	15
2-3 그린i-Net의 구성 -----	16
2-4 그린i-Net 활용 -----	17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주요 기능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기능 비교	
연령별 권장등급	
2-5 그린i-Net 향후 계획 -----	22
3. 그린i-Net 보급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3-1 그린i-Net 캠페인이란? -----	26
3-2. 그린i-Net 캠페인 전개 -----	27
4. 외국의 사례	
4-1 외국의 인터넷 필터링 현황 - 호주 -----	38
4-2 외국의 인터넷 필터링 현황 - 일본 -----	42
4-3 외국의 인터넷 필터링 현황 - 미국 -----	43
자녀지도 Tip	
부모가 가장 궁금해 하는 5가지 -----	46
자녀에게 말해 주어야 할 인터넷 수칙 10가지 --	48
깨끗한 인터넷 세상 그린i-Net -----	49

발행인 : 이 진 강
 발행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전화 02)3219-5114
 인터넷 : <http://www.kocsc.or.kr>
 발행일 : 2009년 9월 (비매품)

디자인 : 맥미디어 (02,2263,6485)
 인 쇄 : 듀바인더 (031,944,8371)

>>01 www.greeninet.or.kr



1. 그린 i-Net 구축 배경

1-1 인터넷 유해정보의 심각성

1-2 유해정보 자율차단 장치의 필요성

1. 그린 i-Net 구축 배경

1-1 인터넷 유해정보의 심각성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이 음란물과 폭력 등 불법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자녀가 혼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초등학교생들의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노출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갖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초등학교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접촉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성범죄는 물론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모방범죄 및 모방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생의 경우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란물에서 표현되는 형태를 현실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그대로 따라하려는 행동양상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정신적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접한 아이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지고, 호기심 충족을 위해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접하면서 중독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실제 행위를 해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 잡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14세 이하의 아이가 음란물을 접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불법 유해정보에 의한 청소년 범죄 사례

■ 사례 1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집단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포르노물을 보고 이를 흥내내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학교 안, 놀이터, 부모가 없는 집 등에서 이런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또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고학년이 저학년들을 위협해 성폭력을 가하거나, 놀이를 하는 도중에 성폭력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신문 2008년 4월 30일자)

■ 사례 2

청주 상당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조모(18) 군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범행한 모 부대 훈련병 김모(21) 씨의 범행 사실을 군 헌병대에 통보했다.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범행을 모의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김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긴 채 16일 군에 입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2008년 9월 17일자)

■ 사례 3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1일 전국을 무대로 빈집과 상가 등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10대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80만원을 훔치는 등 올해 들어 부산과 서울·대구·경기도 등 전국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3월 인터넷 한 포털 사이트에 '가출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당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청소년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브레이크뉴스 2009년 5월 22일자)



■ 청소년 인터넷 불법 음란물 관련 접촉 실태

방 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말 서울·경기지역 만 13~18세 청소년 33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꼴인 35.7%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음란물을 접한 장소로는 집이 95.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 학교 2%, PC방은 1.1%, 친구 집은 0.6% 등에 그쳤습니다. 부모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음란물을 접할 것이라는 생각과 반대되는 결과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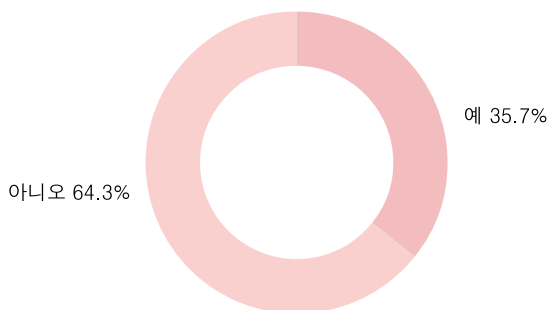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8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전국 1만4716명의 중·고교생 가운데 최근 1년간 성인용 비디오나 영화 등을 본 적이 있는 학생은 37.3%,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는 학생은 35.9%로 집계됐습니다. 음란물을 처음 본 시기는 ‘중1때’(성인용 영상물 11.9%, 음란 사이트 12.7%)가 가장 많았고, ‘초등 6학년 이하’(성인용 영상물 9.0%, 음란 사이트 9.8%)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한 온라인 학습사이트가 초등학교 회원 9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등생의 성교육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14.9%에 해당하는 1360명이 “음란물을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7명 중 1명꼴로 음란물을 접한 것으로 음란물을 접한 경로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3.8%(1268명)가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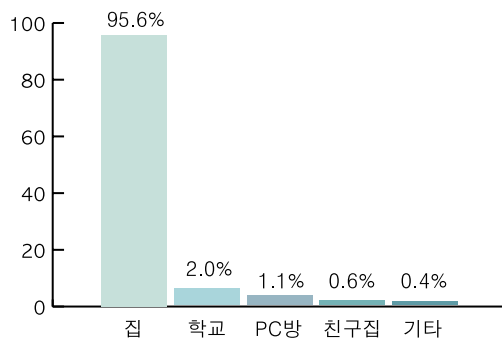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이용 현황

▶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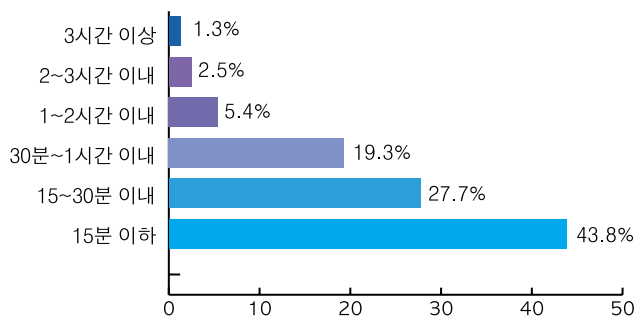


▶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이용하는 장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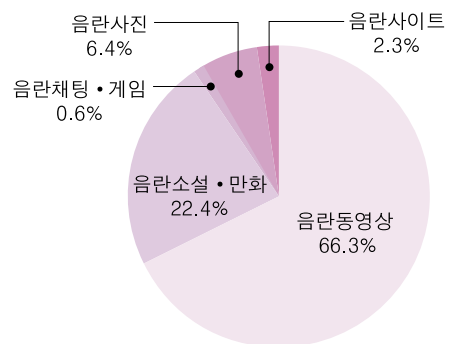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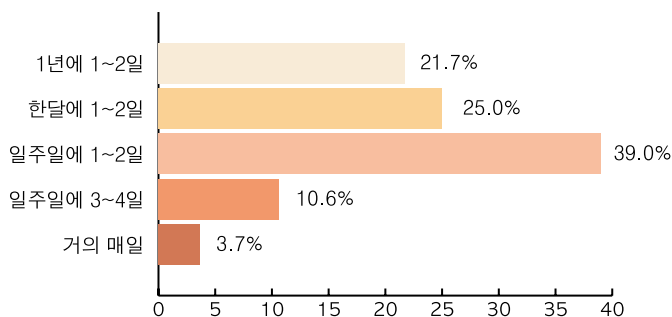
▶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이용 시간은?



▶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음란물 종류는?



▶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이용하는 빈도는?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정보이용 건전화 실태조사 연구 (2008.12)

1. 그린 i-Net 구축 배경

1-2 유해정보 자율차단 장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 유해정보 가운데 음란·선정성 정보에 대한 제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5월 14일부터 1년 동안 심의한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 정보는 총 3만7천612건이었으며, 이 중 2만80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란·선정성 정보가 1만1천709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박 등의 사행심 조장 정보가 9천347건(24.9%), 명예훼손·초상권·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가 7천652건(20.3%) 순이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사한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는 2005년 11만9184건, 2006년 15만6734건, 2007년 21만622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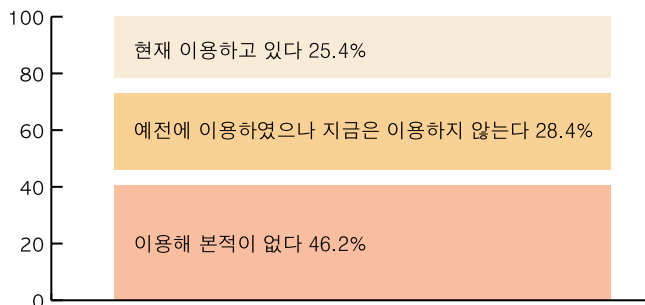
“혹시 내 아이가 음란물 사이트를 보면 어쩌나” “공부는 안하고 매일 폭력적인 게임만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 유해사이트를 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들의 정신적 충격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만은 안 그러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부모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러한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 파일을 삭제하거나 야단을 칩니다. 컴퓨터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인터넷을 못 쓰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음란물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노출이 될 수 있는 만큼, 호기심으로 그것을 본 것은 이해하지만, 음란물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며, 그러한 거짓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신적 피해와 범죄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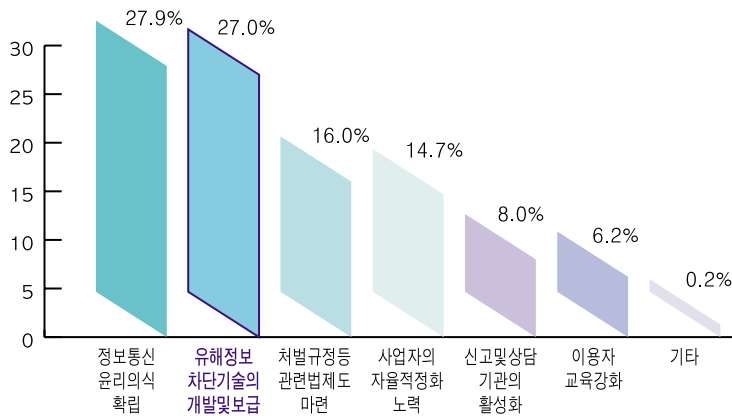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해방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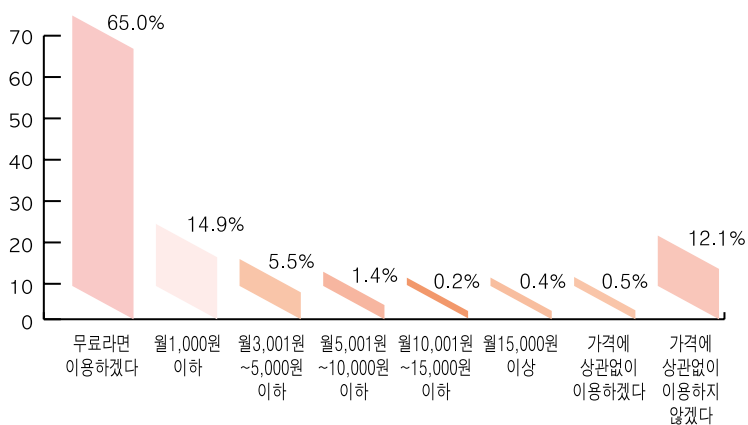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인 '그린-Net' (www.greeninet.or.kr)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Net'을 통해 불법 유해정보 자율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면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유해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이용할 경우 적절한 가격은?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 정보이용 건전화 실태조사 연구 (2008.12)

>>02 www.greeninet.or.kr



2. 그린i-Net 이란?

2-1 그린i-Net이 탄생하기까지

2-2 그린i-Net개요

2-3 그린i-Net의 구성

2-4 그린i-Net 활용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주요 기능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기능 비교

연령별 권장등급

2-5 그린i-Net 향후 계획

2. 그린i-Net 이란?

2-1 그린i-Net이 탄생하기까지

방 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11월 28일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최적의 역할분담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사업은 공공부문(방송통신심의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과 민간부문(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예산 지원과 학부모·교사 대상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정보 DB 구축과 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 민간업체 지원, 홍보캠페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능 업데이트 사업을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시장경제 원리 적용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정부가 사업체를 선정해 개발·보급하는 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원하는 사업체는 누구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되 교육수요자(학부모, 학생)가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도록 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인원에 비례하여 민간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그린i-Net이란?

2-2 그린i-Net 개요

그린i-Net (www.greeninet.or.kr)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올바르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만든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입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주소창에서 www.greeninet.or.kr을 접속하면 무료로 차단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희망하는 가정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저소득층 5만 가구(초고속인터넷 지원대상)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린
Green



i
아이
인터넷 internet, 정보 information



Net
안전망



청 소 년 인 터 넷 안 전 망
그린i-Net

‘그린i’의 의미

‘그린’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녹색의 이미지로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청소년을 표현한 것이고, ‘i’는 인터넷과 인포메이션, 아이의 중의적 의미입니다. ‘그린i’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창의롭게 인터넷을 활용하며 지식과 인격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는 모두의 꿈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2. 그린i-Net이란?

2-3 그린i-Net의 구성

그린i-Net은 크게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부문과 소프트웨어 이용을 지원하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부문에서는 학부모들이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기능 등을 비교하여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PC용 지원 소프트웨어 제품의 종류와 서비스 기능의 선택은 학부모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업체간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검증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용자센터 부문에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코너가 있는가 하면 14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콜센터 전화번호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고,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이용문의와 문의내용을 확인하는 코너 등 다양한 도움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하기 코너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게 유해정보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자료마당에는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자료지도 Tip은 물론 그린i-Net 홍보 동영상 및 CF, 그리고 그린i 캠페인에 대한 생생한 현장 사진과 홍보물 등이 게재돼 있어 청소년 유해정보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그린i-Net이란?

2-4 그린i-Net 활용

■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주요 기능



청소년 유해사이트 필터링 기능

- ▶ 유해정보 즉, 자살, 폭력, 음란물, 도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자발적이고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
- ▶ 이용 목적에 따라 학부모 스스로 차단/비차단 사이트 추가 선택 가능



프로그램 차단 기능

- ▶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중에 사용자가 설정한 항목을 차단하는 기능
- ▶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특정 유해프로그램 차단



사용시간 제한 설정 기능

- ▶ 부모들이 외출하거나 늦은 밤시간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을 미리 조정할 수 있는 기능
- ▶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더욱 유용한 기능
- ▶ 사용시간 제한 설정으로 아이들의 컴퓨터 이용시간을 관리하여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 기대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호 기능

- ▶ 자녀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지울 수 없게 만든 기능
- ▶ 즉, 관리자(부모) 허가없이 프로그램 삭제가 불가능하며, 관리자 외 다른 사용자의 차단 기능 설정 변경 불가



필터링 등급 선택 기능

- ▶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내용별 차단등급에 대한 자율적 선택 기능



동영상 차단 기능

- ▶ 유해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유해 동영상 유통 방지는 어려움
- ▶ P2P, 웹하드, 메신저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음란, 유해동영상(음란/잔혹/엽기 등)의 재생, 편집, 재배포를 차단하는 기능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1 다운로드 페이지 이동



▶그린i-Net 홈페이지 첫 화면에 '무료다운로드' 클러버튼이 있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선택



- ▶소프트웨어 종류를 클릭하면 그린i-Net에서 제공하는 14개의 소프트웨어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 ▶소프트웨어 기능 비교에는 14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특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소프트웨어 선택이 빠릅니다.
-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 상세보기' 코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개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세설명은 물론 설치방법과 사용방법, 자주하는 질문, 이용문의 등 필요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

다운로드 버튼 클릭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했다면 소프트웨어 상세보기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는 코너가 있어 곧바로 다운로드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정보 입력

▶다운로드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 이용자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학부모 성명과 전화번호 등 몇가지만 입력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5

다운로드 받기



▶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기능 비교

기능구성

14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류 기능목록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유해사이트 차단														
내용등급 반영														
허용/차단 예외 적용														
사용시간 관리														
PC 사용시간 제한														
게임 사용시간 제한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기타 차단														
유해동영상 차단														
P2P(파일공유 프로그램) 차단														
메신저 차단														
특정 프로그램 직접 차단														
관리기능														
PC 사용시간 조회														
게임 사용시간 조회														
인터넷 접속내역 조회														
인터넷/휴대폰 원격관리														
사용통계내역 이메일서비스														
기타기능														
사용내역 SMS 전송														



등급기준

- ▶ 등급기준은 인터넷 사이트에 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일정하게 구분해 놓은 분류체계로 흔히 영화등급 등에서 볼 수 있는 연령별 분류도 일종의 등급기준입니다.
- ▶ 등급기준은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에 등급 범주와 수준을 표시하고, 학부모가 소프트웨어에서 자녀가 이용할 적절한 등급수준을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래의 표와 같이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 범주와 각 범주별 5개의 등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준 범주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4등급	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1. -마약사용 조장 -무기사용 조장 -도박
3등급	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	
2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	
1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2. -음주 조장 -흡연 조장
0등급	노출없음	성행위 없음	폭력 없음	비속어 없음	

- ▶ 그린i-Net은 영화, TV 등 기존의 다른 매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령별 구분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연령별 등급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전체가(초등학생가)	1등급	0등급	1등급	0등급
12세 이상(중학생가)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5세 이상(고등학생가)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8세 이상(성인가)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2. 그린i-Net이란?

2-5 그린i-Net 향후 계획

■그린i-Net 시스템 개선

청소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확산과 시스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하여 모니터링과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보급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09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그린i-Net 프로그램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자가 쓰기에 편리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소프트웨어 보급·유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콜센터를 보강하고 불만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린i 캠페인 및 소프트웨어 보급 확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확산은 물론 그린i 캠페인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하면서도 알찬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그린i 캠페인의 경우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홍보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i-Net’ 사이트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린i 캠페인’의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홍보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www.greeninet.or.kr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터넷 세상
그린i-Net이
만들어갑니다”



>>03 www.greeninet.or.kr



3. 그린i-Net 보급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3-1 그린-i 캠페인이란?

3-2. 그린-i 캠페인 전개

3. 그린i-Net 보급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3-1 그린i 캠페인이란?

방 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은 인터넷 상의 유해한 정보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유해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이용 의식 확립 및 실천을 위한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그린i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핵심 메시지 설정

‘그린i 캠페인’의 메시지는 크게 세가지의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고, 다음으로 학부모들에게는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건전한 인터넷 정보이용에 대한 공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i 캠페인 참여

그린i-Net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자원봉사 단체,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 인터넷 안 전망’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와 서비스 개선 제안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비 정기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다 더 깨끗한 인터넷 청정지역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3. 그린i-Net 보급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3-2 ‘그린i 캠페인’ 전개

■ 그린i 캠페인 선포식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확산을 위한 ‘그린i 캠페인’은 지난 4월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그린i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무료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별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그린i 캠페인 선포식’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영화배우 안성기 고문과 교사,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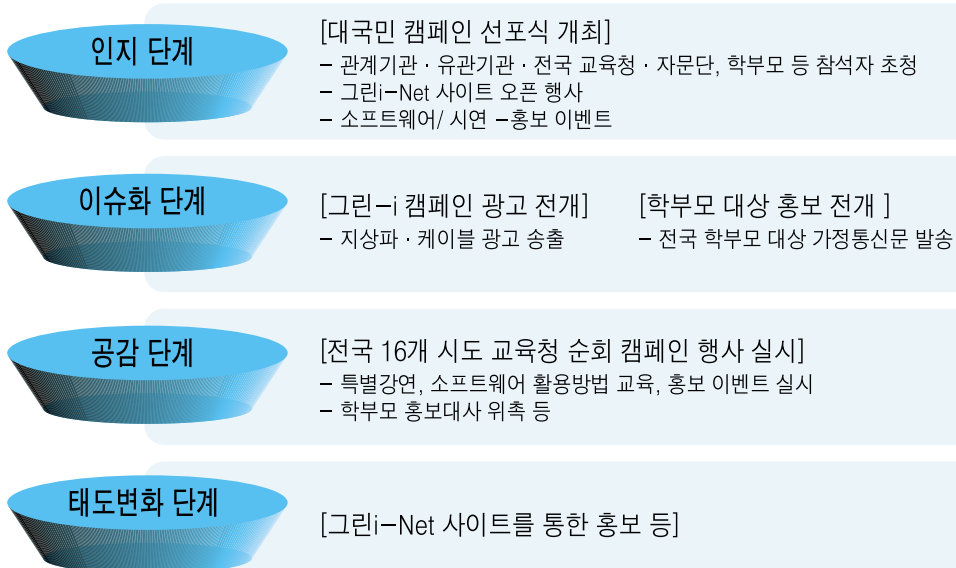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50만 가구에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보급한



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이용이 각종 모방 범죄로 이어지는데다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률이 매년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

[단계별 추진 내용]





녀들의 PC 사용환경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린i 캠페인’을 통해 시작된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무료 보급으로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수시 지도가 가능하고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자문단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린i 캠페인’의 성공적인 개최와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의 운영 목적은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세차레에 걸쳐 진행된 자문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확산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이 개진돼 성공적인 ‘그린i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문단에는 강지원 변호사, 서상기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 영화배우 안성기·김미숙 등 5명의 고문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1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고 문

강지원(변호사, 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김미숙(영화배우)

서상기(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성기(영화배우, 선פל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최영희(민주당 국회의원,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자 문 위 원

강은성((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회장)

강정훈(깨끗한미디어를위한 교사운동 대표, 안산초지고 교사)

김승주(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김영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남택용(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재철(SK텔레콤 상무)

박은희(대진대 교수, 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위원장)

박준석(원플원미디어 대표)

오영규(SK커뮤니케이션즈 상무, 대외협력·홍보담당)

이경화((사)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이병선(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본부장)

이성수(전 GTV 사장)

임정희((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이사장)

한종호(네이버 상무이사, 정책담당)

허 선(한양대 정보경영공학과 교수)

‘전국 순회 형식으로 전개된
‘그린i 캠페인’에는 지역별로
학무보와 교사 등
3백~4백 명이 참여하였고,
전국적으로 연인원 5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 전국 13개 시도 순회 캠페인 실시

‘그린i 캠페인’은 서울 선포식 이후 4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한달 반에 걸쳐 경기와 대전, 대구, 강원, 제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순회 형식으로 전개된 ‘그린i 캠페인’에는 지

역별로 학무보와 교사 등 3백~4백 명이 참여하였고, 전국적으로 연인원 5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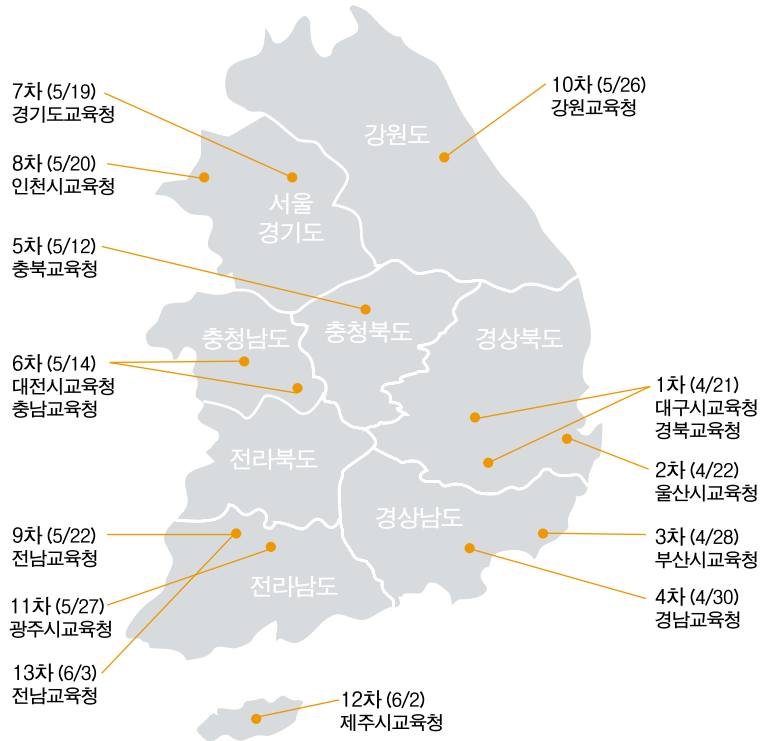
‘그린i 캠페인’ 전국 순회의 시작은 4월 21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그린i 캠페인’에는 대구 경북초등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과 대구시·경북교육청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린i Net 사이트(www.greeninet.or.kr)에 접속하면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인터넷 유해정보를 쉽게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가구에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길에 오른 ‘그린i 캠페인’은 4월 22일 울산시교육청에 이어 4월 28일 부산시교육청, 4월 30일 경남교육청, 5월 12일 충북교육청, 5월 14일 대전시·충남교육청, 5월 19일 경기도교육청, 5월 20일 인천시교육청, 5월 22일 전남교육청, 5월 26일 강원교육청, 5월 27일 광주시교육청, 6월 2일 제주시교육청, 6월 3일 전남교육청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펼쳐졌습니다.



[지역캠페인 추진 일정]





■ 특별강연과 이벤트 · 뮤지컬 등 풍성한 내용

‘그린i 캠페인’ 행사 내용으로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라는 특별 강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시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고, ‘그린i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레크레이션과 퀴즈대회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석자들로 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충북과 대전, 경기, 인천, 전남, 강원 등 8개 지역에서 개최된 ‘그린i 캠페인’ 행사에는 인터넷 유해정보와 위험성 등을 풍자한 학생들의 ‘사이버 기사 돈 키호테’ 뮤지컬 공연이 펼쳐져 교육적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학부모 홍보위원 6천여 명 위촉

지역별 순회 행사에는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i 학부모 홍보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그린i 학부모 홍보위원’은 전국 16개 지역 시도 교육청별 관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마다 1명이 위

촉됐고, 전국적으로는 약 6천여 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위촉된 ‘그린i 학부모 홍보위원’들에게는 각 학교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그린i 캠페인’의 홍보는 물론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가 각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 캠페인 결과 다운로드 수 급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그린i 캠페인’ 전국 순회 결과 4월 10일 선포식 이후 한 달 만에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수가 10만 건을 넘어섰고, 지난 6월 30일에는 40만 건, 9월에는 90만 건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린i 캠페인 우수학교 시상식

지난 6월 30일 방송회관에서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률이 높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그린i 캠페인 우수학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 관계자, 자문단, 기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는 최우수학교 1개교와 우수학교 10개교 등 모두 11개 학교가 수상했습니다. 최우수학교와 우수학교에는 각각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대구 유천초등학교가 최우수학교의 영예를 안았고, 우수학교에는 서울 상도초등학교, 대구 월서초등학교, 대전 중리·유평초등학교, 울산 명촌·명정초등

학교, 경기 송화·은행초등학교, 경북 사동초등학교, 경남 사화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는 그동안의 ‘그린i 캠페인’ 추진에 대한 경과 보고가 이어졌고,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률이 높은 상위 3개 민간사업체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유해정보 차단 나섰다

청소년 만4천여명에게 질문한 결과 35.9%가 음란사이트를, 37%는 온라인 사행성 게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 조사결과에서는 청소년들의 95.8%가 집에서 인터넷 유해정보를 접속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는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급하는 '그린 아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어에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사용시간 제한, 접근한 웹사이트 기록 제공 등의 기능이 있어 유해정보 접근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울산방송(UBC) 4월22일



STOP! 유해정보!

청소년들이 인터넷 유해정보에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각 가정에 제공됩니다.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뿐 아니라 컴퓨터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유해 정보 접촉 시 부모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과 함께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KBS부산 4월28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우리나라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사실상 100%로 세계 최고 수준. 따라서 청소년들이 음란 사이트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명 중 1명 이상입니다. 대부분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음란물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은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도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을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린i-Net에는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14가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하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설치하면 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 사용 환경. 부모의 작은 관심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KBS대전 5월 14일

■ 그린-i 캠페인 언론 관심(신문)



충북도교육청, 그린-i 캠페인 가져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동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우선 저소득층 PC지원을 받은 가정은 ISP(인터넷정보제공자)에서 지원하고, 일반 가정은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홈페이지(www.greeninet.or.kr)를 통해 자율적으로 다운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12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i 캠페인’을 가졌다. 충북일보 5월 12일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greeninet 클릭하세요

각종 인터넷 유해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각 가정에 무료로 보급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8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심의위와 함께 남부교육청 대강당에서 ‘그린-i’ 캠페인을 열고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활용법을 학부모 250명을 상대로 시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가정에서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수시 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4월 28일



청소년 35%, 집 인터넷으로 음란물 봐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말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만 13~18세 청소년 338명을 상대로 실시한 ‘방송통신 정보이용 건전화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35.7%에 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조사 대상 절반가량이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이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5%에 달했다”며 “정보통신윤리의식 정립과 유해정보 차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희망하는 가정에 보급하는 ‘그린-i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조선일보 4월 15일

■ 그린-i 캠페인 참여 학부모 학생 인터뷰



박종인(학부모)

저는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늘 걱정되는 것이 인터넷상의 유해환경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린-i 캠페인을 알게 된 후 제가 직접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저희 집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아도 안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손민현(초등학생)

그린-i-Net 사이트에 함께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였는데요. 그 후로는 친구들이랑 같이 인터넷으로 자료검색을 할 때도 이상한 사이트로 연결되지 않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김정선(학부모)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 그린-i 캠페인을 알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더 일찍 설치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아이들 컴퓨터 하는 모습을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04 www.greeninet.or.kr



4. 외국의 사례

41 외국의 인터넷 필터링 현황 - 호주

42 외국의 인터넷 필터링 현황 - 일본

43 외국의 인터넷 필터링 현황 - 미국

4. 외국의 사례

4.1 외국의 인터넷 필터링 현황 - 호주



■ 특징

호주는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주 정부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 정책은 자율규제, 핫라인, 그리고 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호주통신미디어청(The Australian Communication Media Authority: ACMA)과 영상·문헌등급사무소(The Office Film Literature Classification : OFLC)를 통해 인터넷 콘텐츠를 직접 규제하고 있으며, 인터넷 업체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을 이끌어내는 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유해정보 보호정책

호주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콘텐츠 규제제도, 즉 필터링(filtering), 등급제(rating), 표시제(labelling) 등이 주요 정책으로 거론되어 왔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방송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서비스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호주인터넷산업협회는 1999년 9월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근간이 되는 '방송서비스 개정법'에 따라 행동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행동강령 중 하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범정부적인 노력과 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사업자 단체의 공감대에 힘입어 호주는 2008년 말부터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천개의 웹 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웹 필터를 개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제공하는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필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총 8억2천만 달러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 인터넷 필터링 서비스

호주는 국가적 필터 계획(National Filter Scheme)에 따라 모든 가정에 최적의 필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RL 필터가 가능한 무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설치하든지 두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터넷 콘텐츠 필터는 필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먼저 호주통신청에 의해 금지된 인터넷 콘텐츠는 차단하여야 하고, 설치와 이용이 쉬워야 하며, 필터 소프트웨어 공급처에 의한 기술적 지원(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Q&A)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호주 정부는 인터넷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철통같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색입니다.

호주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기능비교

필터링	Filterpak v7.7	Integard v1.04	Safe Eyes (PC)	Safe Eyes (Mac)	비고
개별 이용자가 차단 사이트를 추가함					
개별 이용자가 허용한 사이트 외에는 차단					
인터넷 채팅방 차단					
인터넷 게임 차단					
인터넷 뉴스그룹 차단					
개인 정보 송신 차단					
제한된 시간 외에는 접근 차단					
채팅방 용어 감시					
허용되지 않은 사이트 접근 감지					
지정 관리자에 의한 원격 종료					

■ 필터 제공 사이트 'NetAl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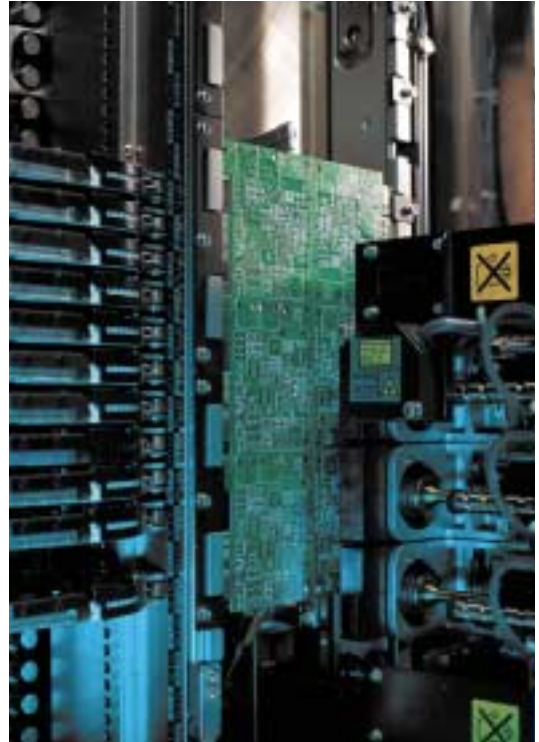
'NetAlert' 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이버 안전계획을 위해 호주 정부 주도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NetAlert' 웹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린i-Net' 과 같이 인터넷 콘텐츠 필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무료로 제공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용자들은 2010년 6월까지 'NetAlert' 사이트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tAlert'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콘텐츠 필터로는 Filterpak v7.7, Integard v1.04, Safe Eyes(PC 버전, Mac 버전) 등 세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필터링 차단 소프트웨어

호주의 콘텐츠 필터링과 차단 소프트웨어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PC 기반(최종 이용자) 필터와 서버 기반 필터, 서버 기반과 PC 기반 혼용필터가 그것으로 대표적인 제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PC 기반(최종 이용자) 필터 제품

- AOL Parental Control (Windows & Mac)
- Arlington Custom Browser (Windows)

② 서버 기반 필터 제품

- AOL Parental Control
- Contents Keeper, 콘텐츠 키퍼 테크놀로지, 호주

③ 서버 기반과 PC 기반 혼용필터 제품

- AOL Parental Control
프리머스-AOL : 호주 \$ 4.95 / 1개월, 2006년 4월 기준 / Bsafe Home (Windows) 호주 \$ 49.95 / 1년
- K9 Web Protection (Windows, Mac 2006년 말) : 무료 가정용

■ 사이버 보안교육 'Cybersmart' 와 'ThinkUKnow'

Cybersmart

호주통신미디어청(ACMA)이 관리하는 Cybersmart는 국가 주도의 사이버 보안 교육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인터넷의 위험을 잘 관리하며 온라인을 통해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어린이와 부모 또는 보호자들에게 건전한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와 부모, 교사, 도서관 사서의 요구에 맞춘 포괄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호주에서는



모든 자료가 무료로 제공된다)하고, 교사를 위해 사이버 안전 지원 계획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인터넷 보안 인식을 고취시키고, 훈련 및 양성 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호주 국민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화센터인 사이버 안전 고객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inkUKnow

ThinkUKnow는 온라인 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 6월 10일 호주연방경찰(AFP)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ThinkUKnow는 부모, 보호자, 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인터넷미디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무료 교육 세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호주 수도권 학교들에서 먼저 실시되어 성공을 거두었고, 2010년부터는 호주 전지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접근이 용이하고,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일상생활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 또한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 외국의 사례

4.2 외국의 인터넷 필터링 현황 - 일본



■ 특징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자동차단하는 필터링 보급방안을 휴대전화 사업자, ISP, 컴퓨터, 필터링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 4개 업체가 연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터링 제품 이용자는 10% 미만에 그쳤고, 필터링 제품의 인지율도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8년 법을 제정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의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유해정보 보호정책

일본은 2008년 10월부터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을 통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의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회사에 필터링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PC 제조사도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거나 쉽게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들로부터 필터링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넷 필터링 차단 소프트웨어

일본의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는 10여 개로 모두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능 Web 필터(Tristar) : 웹 가격 4,980 ¥
- i-필터(DigitalArts) : 라이선스(9,135 ¥ / 6,090 ¥ 두종류), 다운로드 가격 4,200 ¥
- 바이러스 버스터(Trendmicro) : 다운로드 1년 6,980 ¥, 2년 11,980 ¥, 3년 15,980 ¥
- 웹필터 for kids(nifty) : 210 ¥



4. 외국의 사례

4.3 외국의 인터넷 필터링 현황 - 미국



■ 특징

미국의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은 호주와 일본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개입없이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규나 제도 또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인터넷 필터링 차단 소프트웨어

미국에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로는 Netnanny parental와 Safe eyes를 비롯해 CYBERSitter, WiseChoice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별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 Netnanny parental(ContentWatch)

인터넷 시간 조정을 중심으로, 마이스페이스(SNS) 차단, 부적절한 채팅 차단, 이메일 제한, 불법 파일 공유 차단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 내역 모니터링 기능

- Safe eyes(SafeBrowse.com)

인터넷 필터링, 인스턴트 메시지 모니터링, 사용 시간 제한, 이메일 차단,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모니터링 기능

- CYBERSitter(Solid Oak Software)

부적절한 사이트 제한, 방문기록 모니터링, AOL 및 야후·MSN 메신저 기록 모니터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접근 제한, 인터넷 이용시간 제한 기능

- WiseChoice(WiseChoice.net)

포르노그래피 등의 정보 필터링, 채팅 기록 모니터링,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모니터링 보고서 생산 기능

- MaxProtect(Max Software)

P2P, 채팅, 이메일, 메신저 필터링 기능, 이용자별 접근 제한 설정 기능, 채팅시 대화 내용 모니터링 및 부적절한 대화 정보 제공 차단 기능, 모니터링 보고서 생산 기능



>>Tip

www.greeninet.or.kr



Book in Book 자녀지도 Tip

Book in Book 자녀지도 Tip

부모가 가장 궁금해 하는 5가지



1. 우리아이가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요?

음란물을 보는 것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음란물을 한번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내용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 많아서 안이하게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무조건 혼내고 막는 것보다는 본 경험과 느낌 등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란물의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왜 나쁜 것인지 서로 이야기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2. 채팅을 많이 하게 되면 맞춤법에 지장이 있을까요?

채팅 언어가 언어 파괴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 것이라는 시각과 언어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채팅 언어와 맞춤법을 혼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선 중·고등학교 현장에서도 논술이나 주관식 답에 채팅 언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발음 나는 대로 쓰거나 축약, 생략 등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과 채팅 언어를 일상 언어 및 글쓰기에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채팅 언어는 채팅에서만 쓴다는 의식이 요구됩니다.



3. 안티사이트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안티사이트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가치관, 활동, 행적 등에 대해서 문제점과 비판점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입니다.

안티사이트는 대중 매체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를 다루고, 건전한 비판을 함으로써 안티 대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지나치게 개입되면서 욕설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안티집단과 팬집단의 사이버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안티사이트에 대해서는 네티즌들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 상대의 발전을 위한 따뜻한 비판, 성숙한 언어표현 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4. 우리아이가 인터넷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많이 인터넷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구나”를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면 부모님과 인터넷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를 합의하고 실천에 따른 보상과 제재를 해야 합니다.

집에서 자명종을 활용해 약속된 시간에 인터넷을 그만두는 훈련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 사용 일지를 기록하게 하거나, 여가를 컴퓨터 이외의 스포츠 등으로 돌리게 해 다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VDT 증후군이란 무엇이죠?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목이나 어깨 등 신체상에 이상이 오는 문제들을 일컫는 용어로, 다음과 같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 정신과 질환 - 우울증, 수면장애, 두통
- 근골격계 질환 -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 등의 통증과 저림, 요통, 거북목증후군 등
- 안과 질환 - 눈의 이물감, 충혈, 눈부심, 근시, 굴절 이상

사용자의 바르지 못한 자세, 오랜 기간 동안의 반복적인 자세, 좋지 못한 작업 환경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모니터와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고 1시간 이상 작업을 했을 때는 적절한 휴식 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보호기나 손목패드 등의 보조 장치를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Book in Book 자녀지도 Tip

자녀에게 말해 주어야 할 인터넷 수칙 10가지



1. 인터넷 상에서 부모의 허락없이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사는 지역, 일정 비밀번호, 개인신상 정보를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2. 부모의 허락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면 안된다.



3. 부모의 허락없이 함부로 대화방에 들어가면 안된다.
대화방에서 만난 다른 청소년들 가운데 실제로 나이가 많은 어른인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개 무언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4.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면 안된다.



5. 생소한 사람과 전자우편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6. 부모의 허락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7. 인터넷을 통해 자주 만나서 상당히 친해진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서는 안된다.



8. 인터넷을 통해 부모의 허락없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특히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9. 폭력적인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라.



10. 고의적으로 본 것이든 우연히 접한 것이든 불건전한 내용의 사이트나 그림이 있다면 부모에게 알려라.
비밀스럽고 어두운 기억을 마음속에 감추고 혼자 떠올리는 것보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이롭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세상
그린i-Net이 만들어갑니다”

www.greeninet.or.kr



www.greeninet.or.kr

